

# “尹 정권 실정 파헤치겠다”...野, 대정부질문 공세 예고

###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집중 질의 민생 위기·의대 증원 갈등도 도마위...민주 “정책 전환 대안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2~4일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난맥상과 실정(失政)을 가감 없이 드러내겠다는 구상이다. 원내 지도부는 27일 분야별 공세 포인트를 추리고, 질의자 명단도 잠정 확정했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7월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정치 분야 질의에는 법사위 소속인 김승원, 전현희 의원이 전면 배치됐다. 법사위에서 채상병특별법 심사와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저격수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 해병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

에 밝히겠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를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7월 3일 경제 분야에서는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를 집중 조명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 위기도 공세 지점 중 하나다.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이 직접 질의자로 나선다.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대 증원’ 갈등과 정부의 언론정책, 최근 화성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직무대행은 “최근 고조되는 동북아시아 긴장 상황을 해소하고 윤석열 정권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 전환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겠다”며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민생고로 직결하는 국민의 고통을 해소할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3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생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5개 법안도 차기 의총에서 당론으로 지정,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히 감사 개사·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 검토 법안에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 정책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것을 두고 “아편을 겨냥한 먼지 털이식 표적 감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오른쪽)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 등을 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당 뚝 국회부의장 주호영 ... 전반기 원구성 완료

### 개원 28일만에 정상화...다음달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이 27일 완료됐다.

지난 5월 30일 첫 개원 이후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 야당만 참여한 ‘반쪽 국회’로 열려오다 28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뚝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뽑았다.

국민의힘 뚝 부의장으로 주호영 의원이 재석 283명 중 269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에는 ▲ 정부위원회 윤한홍 ▲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 국방위원회 성일종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 정보위원회 신성범 ▲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확정됐다.

김민기 전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 임명 승인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뚝 이학영 부의장,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고, 이에 반발한 여당이 국회 ‘보

이콧’을 선언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회 등원을 결정했고 여당의 복귀로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22대 국회는 개원 28일 만에 진용을 갖췄다.

개원 후 여야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다음 달 2~4일 22대 첫 대정부질문을 한다.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같은 달 5일에는 국회 개원식이 열리며 8, 9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 재신임

### 비공개 의원총회

국민의힘은 27일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 재신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다.

앞서 의원들은 초선, 재선, 3선, 4선 이상 중진 등 선수별 논의를 통해 추 원내대표 재신임으로 각각 뜻을 모았다.

정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선수별 대표들이 나

와서 추 원내대표의 조속한 원내 복귀를 촉구하자고 말했다고, 마지막으로 전체 참석 의원들의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정책위의장과 배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4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나흘째 인선 백령도에 머무르며 잠행 중인 추 원내대표를 이날 중으로 찾아가 의원들의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당 상황이 엄중하니 의원들이 하루속히 추 원내대표가 복귀해 당무를 맡아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민주당이 여러 가지 무리한 국회 운영을 하는데 그에 대응해주길 바라는 게 의원들 입장”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민주 지도부 선출 방식 오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에 새 지도부 선출 방식을 28일 결정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인 정을호 의원은 27일 전주위 1차 회의를 마친 후 “내일 회의를 열어서 사무처에서 보고 받은 것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며, 추대 방식, 당원 표 등가성 등이 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대표 후보자가 1명일 때 선출 규정이 없다 보니 찬반 투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위는 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도 28일 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당헌·당규에는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 대 권리당원 표의 반영 비율이 ‘20:1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 여의도 브리핑

### “인구 감소지역 의대 설립·정주여건 개선”

### 서삼석,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27일 인구 감소지역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기초자치단체에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38개 중 꼴찌로 1명 이하인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특히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31%인 72개가 출산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보건의료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도의 경우는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인재 양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 22개 기초단체 중 응급의학과는 8곳, 산부인과는 2곳, 소아과는 1곳으로 지역에 전문의가 없어 분만이나 응급의료처치를 제때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



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담양·곡성군의 경우 인근 지자체로 이동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의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며, 기초 단체인 필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지원을 하도록 하고 섬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도입된 여객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출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을 비롯한 보건·교육·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청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청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청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